

## V.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1. 가야사 연구의 개관
2. 가야사의 범위

## V.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1. 가야사 연구의 개관

#### 1) 가야사 연구의 전통

고려 중기에 저술된 《三國史記》에 加耶가 제외된 이래, 고대 수백 년간 경남 일대의 영역을 차지하면서 존속했던 가야는 역사상 소외되고 잊혀진 나라가 되었다. 고려 후기의 저술인 《三國遺事》에 文宗朝의 金官知州事가 편찬한 《駕洛國記》가 수록되면서 가야사의 일부는 보존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는 金官國의 후손인 김해 김씨와 경원(인주) 이씨가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에 상층 문벌귀족의 하나였던 것과 관련한 특수한 예에 지나지 않는 듯하다.

조선 초기에 여러 관찬사서가 편찬되었으나, 기존의 사서에 나와 있던 가야관계 사료들이 삼국의 역사 속에 편년체로 기록되었을 뿐이고, 조선 중기의 史略型 및 綱目體의 사찬사서들 속에서도 가야의 역사는 그다지 큰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가야사 연구의 전통은 조선 후기의 실학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三韓의 위치를 어디로 고증하는가의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17세기 초에 韓百謙이 삼한을 모두 한강 남쪽으로 보고 그 중에서 弁韓의 위치는 경상 서남 및 智異一帶이며 駕洛國이 그 곳에 있었다고 한 이후<sup>1)</sup>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의 설을 따르고 있다.

19세기 초에 韓致瀾은 가야 및 임나에 대한 중국 및 일본의 역대 사료들을 모아서 가야사 연구의 기초 자료를 종합하였으며,<sup>2)</sup> 韓鎭書는 가야·가락

1) 韓百謙, 《東國地理志》, 後漢書 三韓傳·新羅 封疆 弁韓舊地.

2) 韓致瀾, 《海東繹史》 권 16, 世紀 16, 諸小國 加羅·任那 및 권 41, 交聘志 9, 通日本始末.

은 곧 金海府로서 弁辰狗邪國과 같으며, 任那·彌摩那는 곧 고령현으로서 弁辰彌烏邪馬國이라는 고증을 추가하였다.<sup>3)</sup> 丁若鏞은 금관국은 弁辰 12國의 總王이었으며, 가야는 해운조건을 이용하여 발전함으로써 신라를 속국으로 할 수 있었다는 등의 견해를 보였다.<sup>4)</sup>

실학자들의 가야에 대한 연구가 그다지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들은 가야사 연구의 효시를 이루었고 그 이후의 연구에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만 한백겸이나 정약용과 같이 가야사를 발전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려는 전통이 근대 이후 한동안 우리 손에 의하여 직접 계승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다.

20세기에 들어 근대적 서술 방법에 의한 가야사 연구의 역사가 시작된 지 거의 100년을 헤아리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야사는 체계적으로 설명되지 못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원인은 가야에 대한 사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도 있고, 또한 연구 시각이 처음부터 잘못 설정되었다는 점에도 있다.

가야사에 대한 기존의 연구 동향에는 倭 또는 백제가 가야를 어떻게 지배하였는가에 관심을 두는 임나 문제 중심의 연구와 가야의 지역 세력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멸망하였는가에 주목하는 발전과정 중심의 연구가 있으나, 모두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우선 기존 연구들의 성과를 제시하고 거기에 나타난 근본적인 연구 시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가야사를 재정립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 보자.

## 2) 임나 문제의 제학설

### (1) 임나일본부설의 성격

가야사에 대한 근대 일본 학자들의 최초의 접근은 주로 《日本書紀》에 나오는 임나관계 한반도 지명에 대한 고증 작업으로 나타났다. 가야관계 지명

3) 韓鎭書, 《海東繹史》續 권 3, 地理考 3, 三韓 弁辰.

4) 丁若鏞, 《疆域考》권 2, 弁辰別考.

비정은 가야사 연구의 기초 작업으로서 필수적인 것이었으나, 그들의 연구는 처음부터 「왜의 임나 지배」라는 선입견에 의하여 이루어져 객관적인 연구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먼저 津田左右吉은 《일본서기》에 대하여 당시로서는 획기적일 정도의 비판을 가하면서 합리적 설명을 추구한 사람으로서, 가야 전역에 대한 지명 비정을 했다.<sup>5)</sup> 그러나 그는 任那府 屬領을 찾아낸다는 측면에서 거의 모든 가야관계 지명을 경상남도 남해안 연변에 배열하다시피 하는 비합리적인 연구 결과를 낳고 말았다.

今西龍은 가야지방 전역에 대한 답사 및 고분·산성 등의 분포 조사에다가 문헌고증적 연구를 더하여 지표 조사보고서를 내놓고, 거기서 행한 지명비정에 점차 수정을 가하였다. 그 결과 가야 지명은 대개 낙동강의 서쪽, 섬진강의 동쪽으로 한정되어, 대체적인 역사 연구의 기초 작업은 이루어졌다.<sup>6)</sup> 그의 일련의 연구는 지표답사와 문헌고증을 겸비하였다는 면에서 그 이전의 연구들에 비해 높이 평가할 점이 있지만, 그것이 당시 史觀의 한계성을 넘는 것은 물론 아니었다.

그러나 鮎貝房之進은 방대한 문헌고증을 통하여 임나의 지명 비정 범위를 경남·경북 및 충남·전남까지 확장시켜서, 임나는 경주지방 부근과 부여·공주 일대를 제외한 한반도 남부 전역을 가리키게 되었다.<sup>7)</sup> 그것은 《일본서기》에 왜의 한반도내 지배 영역이었다고 상정된 「임나」의 범위를 넓혀잡기 위해 그가 문헌 비교 및 언어학적 추단을 거듭함으로써 얻어진 연구 결과였다고 여겨진다.

일제시기의 한국 학자로서 李弘植은 고대 한일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으나 임나관계 일본인명에 대하여 문헌고증적 연구를 하였다.<sup>8)</sup> 또한 池內宏은 《일본서기》에 대한 津田의 연구방법을 이어받아 엄격한 문헌사료 비판과 아울러 학문적 연구 차원의 고대 한일관계사를 정립해 보

5) 津田左右吉, 〈任那疆域考〉(《朝鮮歷史地理研究》1, 1913; 《津田左右吉全集》11, 1964).

6) 今西龍, 〈加羅疆域考〉(《史林》4-3·4, 1919);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1937).

7) 鮎貝房之進, 〈日本書紀朝鮮關係地名攷〉(《雜攷》7 上·下, 1937).

8) 李弘植, 〈任那問題を中心とする欽明紀の整理〉(《靑丘學叢》25, 1936).

려고 모색하였다.<sup>9)</sup> 이러한 문헌고증 차원의 연구들은 개별적인 관계기사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들이나, 기본적으로 왜의 임나 지배를 전제로 한 것이면서 전체적인 체계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그 후 末松保和는 기존의 지명 고증을 비롯한 문헌고증 성과에 의존하면서 한국·중국·일본 등의 관계사료를 시대순에 따라 종합함으로써 고대 한 일간 대외관계사의 틀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최초로 학문적 체계를 갖춘 이른바 「南韓經營論」을 완성시켰으니,<sup>10)</sup> 그 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三國志》魏書 倭人傳에 ‘其北岸狗邪韓國’이라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3세기 중엽에 이미 왜인은 변진구야국 즉 임나가라를 근거지로 삼고 있었으며, 왜왕은 그 중계지를 통하여 諸韓國에 辰王보다 큰 통제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로 《일본서기》神功皇后 49년조의 7國 및 4郡 평정 기사로 보아, 369년에 왜는 경상남북도 대부분을 평정하고 진라남북도와 충남 일부를 귀복시켜 임나 지배체계를 성립시켰으며, 또한 그 西方 정복지 중에서 제주도를 백제에게 주어 백제왕의 조공을 서약시켰다.

셋째로 <광개토왕릉비>의 기사로 보아, 왜는 400년을 전후해서 고구려군과 전쟁을 통하여 임나를 공고히 하고 백제의 복속관계를 강화하였다.

넷째로 《宋書》에 나오는 倭五王의 對中通交 당시의 작호로 보아, 일본은 5세기에 외교적인 수단으로 왜·신라·임나·가라뿐만 아니라 백제의 영유 내지 지배까지 송으로 하여금 인정시키려고 하였다.

다섯째로 《南齊書》加羅國傳의 기사로 보아 479년에는 加羅王 荷知가 南齊에 사신을 보낼 정도로 일본의 통제력이 완화된기 시작하였으며, 《일본서기》繼體天皇代의 기사로 보아 6세기 초에 일본은 백제에게 전남북 일대의 임나의 땅을 할양해 주기도 하고, 신라에게 남가라를 약탈당하기도 하면서 임나가 쇠퇴하였다.

여섯째로 《일본서기》欽明天皇代의 기사들로 보아, 540년대 이후 백제와 임나일본부는 임나의 부흥을 꾀했으나, 결국 562년에 신라가 任那官家를 토

9) 池内宏, 《日本上代史の一研究》(近藤書店, 1947).

10) 末松保和, 《任那興亡史》(大八洲出版, 1949).

멸함으로써 임나가 멸망하였다.

일곱째로 그 후에도 일본은 大和 2년(646)까지 신라에 대해 多多羅 등 4군의 「임나의 調」를 요구하여 받아내었다. 즉 왜는 4세기 중엽에 가야지역을 비롯한 광역을 군사정벌하여 그 지배 아래 임나를 설치하고 6세기 중엽까지 한반도 남부를 경영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고대사 및 고고학의 연구 수준이 향상된 1960년대 이후에는 畿内 大和세력이 일본열도내에서 九州地方까지 힘을 뻗쳐 상대적 우세를 확보한 시기를 대체로 5세기 후반 내지 6세기 전반으로 보고 있으며, 중앙집권세력이 열도내 각 지방세력에 대한 자치권을 통제하여 행정적인 지배체제를 정비한 것은 7세기 후반 정도에야 가능하였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구주까지도 세력을 미치지 못하는 야마토국이 그보다 멀리 떨어진 남한을 4세기부터 경영하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또한 왜가 임나를 200년 동안이나 군사 지배를 하였다면 그 지역에 일본 문화유물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야 하는데, 가야지역 고분 발굴자료들에 의하면 4세기 이전의 유물 문화가 5~6세기까지도 연속적으로 계승되는 양상이 나타난다.<sup>11)</sup> 즉 일본에 의하여 지배당하였다는 증거는 그 문화유물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末松의 문헌사료 해석이 잘못되었음이 입증되는 것이다.

그 후 1970년대에 들어와 일본사학의 성숙에 따라 기존의 남한경영론에 대한 반성이 일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연구동향은 이른바 「임나 지배」의 성격을 달리 추정해보기도 하고 그 기간을 축소해보기도 하였으나, 모든 관점은 「임나」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山尾幸久는 《일본서기》의 기사들을 재검토하고 백제사와의 관련성을 첨부하여, 왜국에 의한 임나 지배의 성격이 5세기 후반에는 「직접 경영」이었고 6세기 전반에는 백제왕을 사이에 낀 「간접 경영」이었다고 주장하였다.<sup>12)</sup> 즉 우선 45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쳐서 백제의 木羅斤資·木滿致가 임나를 일괄

11) 崔鍾圭, 〈陶質土器 成立前夜와 展開〉(《韓國考古學報》12, 1982), 227쪽.

金泰植, 〈後期加耶諸國의 성장기반 고찰〉(《釜山史學》11, 1986), 26~28쪽.

12) 山尾幸久, 〈任那に關する一試論〉(《古代東アジア史論集》下, 末松保和博士古稀記念會, 1978).

하여 직접 경영하였는데, 목만치가 백제 東城王 시대에 왜국으로 이주하였으므로, 그를 구성원으로 삼게 된 왜국은 임나 경영의 역사적인 정당성을 계승하게 되었다. 둘째로 그 이후로 왜왕이 임나에 관리들을 파견하여 安羅國(한안) 소속의 한 작은 성읍에 왜왕의 신하들이 체류하고 있는 것이 임나일본부의 실태이고, 6세기 전반에 그 倭臣들을 사실상 움직이고 있던 자는 성주·고령의 가라 출신 사람과 왜인과의 혼혈아였다. 셋째로 6세기 전반의 임나제국에 대한 정치적 지배는 사실상 백제왕에 의해 행해졌으나, 왜국이 임나제국 지배체계의 처치에 대하여 역사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백제왕은 왜왕을 교섭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의 연구 결과는 왜왕권에 의한 임나 경영의 개시 시기를 5세기 후반 이후로 늦추고 임나경영의 계기 및 방식을 백제와 연관하여 본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5세기 후반 이전에는 백제가 가야지역을 지배하다가, 그에 관계하였던 백제 귀족이 왜국으로 망명한 결과 왜가 가야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다. 또한 540년대 欽明紀에 보이는 「在安羅諸倭臣」의 존재를 통해서 왜국에 의한 직·간접의 경영이라고 평가하였으나, 그들의 행동양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大山誠一은 《삼국사기》와 《일본서기》의 기사를 혼합하여, 가야지역 상황을 배경으로 삼아 임나일본부의 성립과정을 논하려 하였다.<sup>13)</sup> 즉 487년에 백제가 북부 가야를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6세기 초에 신라가 남가라를 병합하자, 백제·신라에 의해 독립을 위협받던 加耶諸國과 在留日系人이 야마토국에 보호를 요청하므로, 532년에 近江毛野臣이라는 장군을 파견하여 일본부를 설치하였다는 것이다. 일본부는 야마토국에서 파견된 日本府卿과 현지의 日系人으로 임명된 日本府臣·日本府執事로 조직되어 단순한 야마토국의 출장기관이 아니라 가야 제국의 왕들과 합의체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임나일본부 성립의 시기를 6세기 전반으로 늦춰잡고 그 원인을 가야로부터의 요청에 구한 점에 특색이 있으며 그만큼 진전된 것이라 하겠다. 다만 《일본서기》顯宗紀의 紀生磐 說話를 토대로 지명 고증을 잘

13) 大山誠一, 〈所謂「任那日本府」の成立について〉 上・中・下(《古代文化》32-9・11・12, 京都; 古代學協會, 1980).

못하여 487년에 백제가 북부 가야를 군사적으로 제압하였다고 본 점이나, 繼體紀 후반부 사료에 대한 무리한 편년 조작 등이 문제로 남는다.

鈴木英夫는 임나 성립에 대한 大山說을 받아들이면서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sup>14)</sup> 즉 그는 기존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4~5세기에 왜국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한 것은 금석문자로나 중국사료에서는 증명할 수 없고, 해당 시기의 《일본서기》 기재 내용도 신뢰할 것이 못되며, 「임나일본부」는 가야 제 지지배층의 요청에 의하여 성립되었고, 이는 530년에 왜왕권에서 근강모야신이 군사 집단을 이끌고 안라에 파견되어 활동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왜의 안라 진출은 그 이듬해인 531년에 백제의 안라 進駐에 의하여 종결되었으며, 백제가 가야의 「맹주」의 지위를 장악하자 「在安羅諸倭臣」은 백제왕의 통제에 복속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鈴木의 연구에 의하면 임나일본부는 단 1년간 안라에 존속되었을 뿐이므로, 이것은 임나일본부의 존립 시기와 그 의의를 극도로 축약해서 보여 준 것이다. 그러나 《일본서기》 소재 기사 of 문맥으로 보아, 모야신의 성격은 점령군 장군이 아니라 단순한 외교사절의 성격을 띠고 있었을 뿐이며, 531년 이후의 「제안라제왜신」은 백제왕의 통제에 복속한 것이 아니라 안라왕의 통제에 복속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가야사에 대한 대외관계 중심의 연구, 특히 임나일본부설은 주로 일본 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그 연구성과가 성숙되어 감에 따라 왜에 의한 임나 지배의 기간과 성격을 점차 축소시켜 보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연구 시각이 기본적으로 가야사라기보다 가야피지배사에 놓여 있다는 한계성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 (2) 임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경향들

전형적 관점의 임나일본부설은 여러 각도의 반론에 의해 폐기되어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반론들은 임나 문제를 혐오해서 단순히 피하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각도에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 대표

14) 鈴木英夫, 〈加耶・百濟と倭—「任那日本府」論—〉(《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 1987).



적인 학설들을 소개해 보기로 한다.

우선 가야사의 관점에서 보면 대외관계적 연구의 일환이지만, 국내 학자들의 연구 중에서 왜의 임나지배설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연구 성과가 있다. 즉 千寬字는 「왜의 임나 지배」가 아닌 「백제의 가야 지배」라는 시각으로 가야사의 복원을 시도하였으며,<sup>15)</sup>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변한은 원래 북방 요동에 있었는데 그 때부터 진한에 대하여 부용적인 지위에 있었으며, 기원전 2세기에는 남하하여 황해도 방면에 있었다. 그 후 기원 전후한 시기에 변한은 죽령·조령의 북방에서 진한과 함께 「古之辰國」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가 기원후 2세기 중엽에 다시 남하하여 김해지역으로 정착하였다.

둘째로 3세기 초에 구야국은 급격히 약화되는데, 이는 구야국 지배층의 주력이 일본으로 빠져나간 것을 반영하는 듯하다. 가야의 首露下降神話와 일본의 天孫降臨神話가 비슷한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셋째로 《일본서기》神功紀 49년조로 보아 백제의 근초고왕은 재위 24년(369)에 군사를 보내 낙동강 방면과 전남 해안 방면을 확보하였으며, 이 때 安羅(함안)·卓淳(대구)·加羅(고령) 등의 가야제국은 백제권에 편입되었다.

넷째로 〈광개토왕릉비〉庚子年條의 기사는 400년에 고구려·신라의 연합군이 백제와 그 부용인 가야제국 및 원병인 왜의 연합세력과 낙동강 방면에서 충돌한 것을 전하는 자료이다.

다섯째로 《일본서기》應神紀·雄略紀·顯宗紀의 기사로 보아, 5세기의 임나일본부는 백제가 낙동강 중·상류지역으로 진출한 시기에 가야 지배를 위해 김천 방면에 설치한 派遣軍司令部였다. 이것이 《일본서기》편찬과정 중에 紀氏 일족과 같은 백제계 왜인들에 의하여 왜의 것으로 변조된 것이다.

여섯째로 계체기 전반부의 기사로 보아, 6세기 초에 백제 무령왕은 哆唎(의성군 다인)·己汶(김천시 개령)·帶沙(달성군 다사) 등의 낙동강 중·상류지역을 다시 점령하여, 가야 북부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고자 하였으며, 당시 가야의 중심세력은 고령의 대가야였다.

15) 千寬字, 〈復元加耶史〉上·中·下(《文學과 知性》28·29·31, 1977·1978; 《加耶史研究》, 一潮閣, 1991).

일곱째로 제4기 후반부의 기사로 보아, 법흥왕 14년(527) 이전에 신라가 김해의 남가라를 함락시키자, 백제도 낙동강 하류 방향으로 진출을 기도하여 聖王 9년(531)에 진주 방면에 군사령부를 설치하였다.

여덟째로 흠명기의 기사로 보아, 540년대 이후의 임나일본부는 함안 방면의 백제 군사령부로서, 이는 백제의 주도하에 가야의 제세력을 모아 對신라 방위전선을 모색하였으나, 562년에 신라의 공격에 의해 고령의 대가야와 함안의 백제 군사령부가 모두 최후를 맞았다.

이 연구 결과는 일본 학자들과 같이 《일본서기》를 주요 사료로 채택하였으면서도 왜에 의한 임나경영설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 하며, 문헌사료의 종합만으로 가야의 前期 중심을 김해로 보고 後期 중심을 고령으로 구분하여 본 것은 매우 중요한 업적의 하나라고 하겠다. 그러나 4세기 중엽 이후 6세기 중엽까지의 기간에 걸쳐 가야가 백제 군사령부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다고 추정된 점은 가야 지역의 고고학적 유물 출토 상황과 어긋난다. 또한 사료적 신빙성이 의문시되는 《삼국사기》초기 기록과 《일본서기》옹락기 이전의 기록들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가설을 세운 점은 해당 논거에 대한 한계성이 아닐까 하며, 기존설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긴 하나 淳國의 지명 비정 등에도 문제점이 남는다.

金鉉球는 6~7세기 백제·야마토 사이의 외교관계의 특징을 용병관계로 파악하여, 한 단계 진전된 연구결과를 보여 주었다.<sup>16)</sup> 그 연구에서 임나관계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즉 4세기 후반 近肖古王·近仇首王代 이후로 백제는 임나·신라의 국경 분쟁지대인 久禮山 근처에 「任那日本縣邑」이라는 직할령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곳을 통할하는 지배기구가 「임나일본부」였다. 또한 6세기 전반 백제는 야마토국으로부터 용병을 받아 그 직할령에 배치하고, 郡令·城主로서 印岐彌·許勢臣 등의 日系 백제관료를 파견하여 그들을 지휘케 하였다고 보았다.

이 가설은 크게 보아 천관우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나 사료적 신빙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흠명기의 기록만을 이용하여 도달한 결론이라는 점에 의

16) 金鉉球, 《大和政權の對外關係研究》(吉川弘文館, 1985).

의가 있다. 특히 백제 성왕이 야마토로부터 용병 성격의 군사를 요청했으며, 실지로 550년대 이후 소규모의 왜병이 백제군에 편성되어 활약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흠명기 소재 기사에 나타난 백제 聖王의 언급 중에 ‘昔我先祖速古王・貴首王之世 安羅・加羅・卓淳旱岐等 初遣使相通 厚結親好 以爲子弟’라고 있는 것은 4세기 후반 당시 백제・가야 사이의 교역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는 될지언정 상하관계나 직할령 설치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임나일본부는 백제로부터 명령을 받거나 백제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反百濟的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그에 소속된 일본 계통 관인을 백제의 군령・성주와 동일시할 수 없다.

한편 이른바 「임나 경영」의 성격에 대하여 왜국이나 백제가 가야지역을 어떤 형태로든 군사 정벌하여 지배하였다는 임나지배설과 달리 외부세력에 의한 군사 정벌이나 지배를 상정하지 않는 견해의 하나로서 井上秀雄의 「僞倭説」이 있다. 그는 《일본서기》의 원전 사료를 추출해 내어 분석하는 방법론을 써서 좀더 객관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井上說에 의하면 임나일본부는 야마토국의 出先機關 내지 남한 경영의 거점이 아니고, 이른바 「일본부의 군현」을 통치하는 기관이었다고 하였다. 또한 「일본부의 군현」이란 왜인으로 칭하는 임나의 지방호족이 통치하는 군현으로서 신라・백제와의 접촉지대에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임나제국 방위의 역할을 맡아 임나집사의 외교권을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이라 하였다. 게다가 〈廣開土王陵碑〉에 보이는 왜군의 대다수는 왜로부터의 渡來 有無에 관계없이 왜인을 칭하는 것이 정치적・군사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임나 제국의 지방호족들의 세력이었고, 《일본서기》에 인용된 《百濟記》에 보이는 「大倭 木滿致」는 왜인을 사칭한 자였다는 것이다.<sup>17)</sup>

이 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임나일본부는 자신의 지배군현을 가지고 있던 임나 제국의 독립소국의 하나이되, 그들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 왜인을 사칭했다는 것이므로, 「임나일본부」는 곧 「僞倭의 임나소국」이라는 설이다. 또한 그의 주장 가운데에는 남한지방에 어느 정도의 왜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17) 井上秀雄, 《任那日本府と倭》(東出版, 1973).

임나일본부가 야마토국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으나, 그 안에는 吉備・的・河内・爲哥(伊賀=三重縣) 등과 같이 일본 중앙・지방의 호족명을 자칭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모두 「위왜」로 되어 있었던 것만은 아니고, 거기에는 일본열도의 각지에서 온 「任那 거주 왜인 집단」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인 학자의 연구 결과 중에서 왜의 임나지배를 부인한 최초의 것으로서 주목된다. 그의 이러한 주장에는 일면의 진실이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야 제국의 연맹세력이 백제・신라 등의 외부적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서 현지에 들어와 살고 있던 왜인 집단을 앞장세워 정치적으로 이용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임나일본부가 임나의 한 독립소국이었다고 할 때, 그 중심지는 안라왕이 통치하던 안라국에 있고 그 군현은 신라・백제와의 경계지대에 따로 떨어져 있던 국가가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井上은 같은 책에서 「일본부의 군현」은 야마토국이 임나제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해외에 있는 백제・신라의 분쟁지대에 설치한 직할령적인 존재이고, 일본부 관료 중에서 일본부경과 일본부집사, 파견장군 등은 일본에서 파견된 것이라고도 하였다. 이 논리는 임나일본부가 야마토국의 출장기관이 아니라는 자신의 기본 논지와 서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견해는 《일본서기》의 사료 처리 면에서 면밀한 태도를 보여, 뒤의 연구자들에게 여러 모로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임나 경영」의 성격에 대하여 외부 세력에 의한 군사 정벌이나 지배를 상정하지 않는 또 하나의 견해로서 임나와 왜 사이의 외교나 교역의 측면을 중시하는 「外交交易說」이 있다.

외교교역설 중에서도 우선 임나와 왜 사이의 상업적 교역을 중시한 설들이 있는데, 일찍이 이병도는 소위 임나일본부의 訓은 「야마토노미코토모찌」로서 倭宰의 뜻이요 宰는 사신의 뜻이라 하고 나서, 「임나부」는 후세의 倭館 관리와 같은 것으로서 본시 왜국이 加羅 諸國과의 무역관계를 위하여 설치한 公的 商館인데, 후에 가야 제국이 신라의 압력에 못이겨 왜인의 원조를 구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다소 그 역할의 중심이 되었던 것 같다고 하

였다.<sup>18)</sup> 이 견해는 1930년대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착상이고 지금도 다시 검토해 볼만 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하겠는데, 아쉽게도 본인의 말대로 「힌트」만 제시하였을 뿐 사료상의 구체적인 검증이나 추론과정을 보여 주지 못하였다.

그 후 吉田晶은 왜국을 위주로 한 교역관계에 주목하여 임나 문제에 대한 기본 성격을 추구하였다. 즉 4세기 이래로 가야지역은 왜의 각지 세력들에 대한 鐵素材 및 생산기술의 공급지였는데, 차츰 기나이(畿内)세력이 일본열도에서 국가 형성의 주체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자, 그들은 가야 제국연맹이 유지하고 있던 회의체에 자기측의 관료를 참여시켜 보다 많은 선진문물을 기나이측에 독점적으로 수용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이므로, 그들이 파견한 관료로 구성된 임나일본부는 가야에 대한 통치기관이나 군정기관이 아니라 교역기관이었다는 것이다.<sup>19)</sup> 吉田은 이병도의 견해를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와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또한 李根雨는 6세기를 전후한 시기의 일본열도 내부상황에 대하여 吉田說을 받아들이면서도 임나일본부는 5세기 이전의 九州 왜왕조와 관련이 있는 문물 수용의 통로였던 것이고, 6세기 초 이후에야 국제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야마토세력과는 아무런 연관을 갖지 않는다고 보았다.<sup>20)</sup>

서로 간에 약간의 차이점은 있으나 교역기관설은 임나 문제의 본질을 가야와 왜 사이의 교역, 특히 왜에 의한 가야문물의 수입 문제에 관련지어서 이해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은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임나일본부」는 기본적으로 백제·가야와 왜 사이의 교역기관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되, 그 설치 시기와 주체는 가야사의 전개과정과 연관시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반면에 이병도에 의해 이미 제기되었던 견해의 일부이기도 하나, 請田正幸

18) 李丙燾, 〈三韓問題의 新考察〉 6(《震檀學報》 7, 1937;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305쪽).

19) 吉田晶, 〈古代國家の形成〉(《岩波講座日本歴史》 2, 古代 2, 1975).

20) 李根雨, 〈日本書紀 任那關係 記事에 關하여〉(《清溪史學》 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5), 29~34쪽.

은 임나일본부의 訓을 검토하여 이를 왜가 가야 제국과의 외교 교섭을 위해 임시로 파견한 使臣團으로 보았고,<sup>21)</sup> 李貞姬·李永植은 이를 적극 지지하였으며,<sup>22)</sup> 鬼頭清明은 請田說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야마토 정권과 별개의 정치 주체로서의 倭로부터 파견된 관인들의 殘存形態였다고 파악하였다.<sup>23)</sup> 또한 奥田尙은 임나일본부가 가야와 왜 사이의 외교기관이기는 하되 그 설치 주체가 임나 제국이었다고 하였고,<sup>24)</sup> 延敏洙는 이를 안라로 고정시켰으며,<sup>25)</sup> 金泰植은 첫 설치 주체를 백제로 보되 이것이 중간에 안라의 주도로 변질되었다고 보았다.<sup>26)</sup>

결국 외교기관설은 임나문제의 본질을 가야와 백제·신라·왜 사이의 정치적인 외교 문제에 관련지어 이해한 것이다. 국제간의 관계이니가 상호간에 사신단이 일시 파견될 수도 있고, 그들이 머무는 곳을 공식적인 기관으로 조성해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인들이라고 해도 한 지역에 오래 살다 보면 그 지역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특히 《일본서기》 欽明紀의 자료에 즉응하여 볼 때, 안라가 일본부를 장악한 540년경부터 550년경까지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안라의 외무관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앞의 외교교역설 중에서 鬼頭清明과 李根雨의 견해는 임나 문제에서 외교 교역의 측면을 그다지 강조하지 않았으나 일본 내부의 상황에 대한 이해에 공통점이 있다. 즉 그들은 6세기 이전 일본열도의 주도세력이 야마토세력 이외의 어느 왜, 그 중에서도 九州의 倭이고, 임나일본부는 그 왜와 가야와의

21) 請田正幸, 〈六世紀前期の日朝關係－任那「日本府」を中心として－〉(《朝鮮史研究會論文集》11, 1974).

22) 李貞姬, 〈古代日本の政治的勢力成長에 대하여〉(《韓國傳統文化研究》1, 曉星女大, 1985), 197~198쪽.

李永植, 〈古代日本の任那派遣氏族の研究〉(《富士ゼロックス・小林節太郎記念基金 1989年度研究助成論文》, 1990), 48~49쪽.

23) 鬼頭清明, 〈『任那日本府』の検討〉(《日本古代國家の形成と東アジア》, 校倉書房, 1976).

24) 奥田尙, 〈「任那日本府」と新羅倭典〉(《古代國家の形成と展開》, 吉川弘文館, 1976).

25) 延敏洙, 〈任那日本府論－소위 日本府官人の出自를 중심으로－〉(《東國史學》24, 東國大, 1990).

26) 金泰植, 〈530년대 安羅의 「日本府」經營에 대하여〉(《蔚山史學》4, 蔚山大, 1991).

사이에 있었던 기관이라고 하였는데, 이 지적은 매우 주목된다. 《일본서기》 흠명기에 나오는 안라의 임나일본부가 5세기 이전부터의 것이었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그러한 대세 파악은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만일 그 지적이 사실이라면 이른바 임나 경영의 문제는 원천적으로 다시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임나 문제의 성격에 대한 이해는 이처럼 일본고대사 자체의 모호성 때문에 더욱 갈피를 잡기 어려운 것이다.

한편 가야사만을 다룬 것은 아니지만 가야를 비롯한 한반도 남부지역과 일본고대사를 거시적으로 연결짓는 연구들이 있다.

江上波夫는 일본고고학의 성과들을 종합하여 한일관계사에 응용함으로써, 거시적인 기마민족 정복왕조설을 발표하였다.<sup>27)</sup> 즉 동북아시아 계통의 기마민족이 변환에 와서 한동안 남한을 지배하다가 변환의 辰王 자손이 4세기 초에 일본 북구주로 건너가 倭韓연합왕조를 건국하고 崇神天皇이 되었으며, 5세기 초에는 그의 자손인 應神天皇이 북구주에서 기나이로 진출하여 야마토국을 창시한 후 일본열도를 통합하고 한반도 남부를 경영하다가 7세기 중엽 이후 손을 뗀다는 것이다.

북한의 金錫亨은 《일본서기》와 일본고고학 자료들을 가지고 일본열도내에서의 상황을 중심으로 한 고대한일관계사 영역을 개척하여서 이른바 「分國說」을 내놓았다.<sup>28)</sup> 그에 따르면 4~5세기의 일본 고분문화는 백제·가야 등 한반도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졌고 그 주체세력들은 모두 한국 계통 소국 즉 분국이었으며, 《일본서기》에 나오는 모든 한반도 관계기사는 일본열도 내부의 한국 계통 소국들 사이의 일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 결과들은 고고학적 문화 전파의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여 일본고대사 자체 및 임나일본부설의 취약성을 입증함으로써, 1970년대 이후 일본 학계의 반성을 촉구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기마민족설은 이른바 「왜한연합왕조」라는 개념을 통하여 결과적으로는 남한경영설을 연장시킨 양

27) 江上波夫, 〈日本における民族と國家の起源〉(《東洋文化研究所紀要》32, 1964); 《騎馬民族國家》, 中央公論社, 1967).

28) 김석형, 〈삼한 삼국의 일본 열도 내 분국들에 대하여〉(《역사과학》63-1, 1963); 《초기조일관계연구》, 사회과학원출판사, 1966).

면성이 있으며, 분국설은 《일본서기》를 비롯한 문헌사료들을 이용할 때 거의 모든 사료를 무리하게 일본열도에서의 사실로 억측함으로써 오히려 한 반도내의 가야사를 포기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들은 가야사 및 일본고대사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 속에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 3) 가야관계의 재학설

#### (1) 문헌사학 계통의 가야사 연구

해방 이후 국내 학자들은 가야 자체의 발전과정에 주목하는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나 「임나일본부」라는 용어와 《일본서기》라는 책 자체가 금기시되어 가야사에 대한 논의가 그리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

1930년대 이래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해방 이후 출간된 국내 학자들의 가야사 관계 연구들은 낙동강 유역에 6가야연맹체가 520년간에 걸쳐 발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논하였는데, 그 연구자들 중에 安在鴻·崔南善·李丙燾 등이 있다. 다만 안재홍이나 최남선의 연구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연구를 뒤이어 「가라」의 語源에 대한 언어학적 고찰이나 6가야의 위치 비정에 머물렀으나,<sup>29)</sup> 이병도의 연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야의 발전과정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병도는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과 《일본서기》를 거의 배제하고 《三國志》·《三國遺事》 및 《삼국사기》가야 멸망기사 등을 이용하여 가야관계의 짙막한 논문들을 몇 개 발표하였는데,<sup>30)</sup> 그 요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김해의 가락국이 부족국가로서 성립된 것은 기원전 2세기 이전의 일이며, 변진 소국들은 마한의 맹주인 진왕에게 소속되어 있었다. 변진의 일부 소국

29) 安在鴻, 〈六加羅國 小考〉(《朝鮮上古史鑑》上, 1947).

崔南善, 《朝鮮常識》地理篇—加羅(1948; 《六堂崔南善全集》2, 玄岩社, 1973).

30) 李丙燾, 《韓國史》古代篇(震檀學會, 1959).

——, 〈加羅史上的 諸問題〉,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305~350쪽).



들은 진왕에게서 벗어나 독립적인 6가야연맹체를 이루었는데, 그 최초의 맹주국은 고령의 대가야였다. 3세기 전반에 김해 금관가야(본가야)의 中始祖인 수로가 다시 6가야연맹을 결성하였다. 금관가야는 532년에 신라에 투항하였으며, 대가야는 562년에 신라에게 멸망당하였다. 이처럼 이병도가 사료 계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사실을 전하고 있는 문헌기록들을 세밀히 고증하여, 가야사의 전개과정을 이만큼이나마 정리해낸 것은 중요한 업적임에 틀림없다고 하겠다.

그 다음으로 金哲垞은 고대사 개설서의 일부분에서 가야의 발전과정을 개괄적으로 서술하였다.<sup>31)</sup> 즉 3세기경에 철기문화를 소유한 북방유이민 등의 파급으로 가야지역 각지에 김해 가락국을 비롯한 부족국가들이 형성되었고, 그 후 대가야와 금관가야가 그 중에서 가장 강성하게 되자 이 둘이 대등하게 결속되어 上下加耶聯盟을 이룩하였으나, 더 발전하여 하나의 고대왕권을 이루지는 못하였다고 보았다. 이는 가야의 발전과정을 사회구조면까지 심화시켜 좀더 체계화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위의 성과들은 연구 관점을 올바르게 하여 가야의 발전과정을 적극적으로 밝히려는 개척적인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고고학적 발굴 조사 및 연구가 충분치 못하였던 당시 학계상황의 제약으로 인하여, 가야사 연구의 기본적 한계성인 사료 부족을 극복할 새로운 방법론을 찾아내지 못함으로써 가야사 발전의 기본 방향과 편년 등을 오도한 한계성이 있다고 하겠다.

李基東은 가야사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한 결과 상당히 정리된 인식체계를 보여 주었다.<sup>32)</sup> 즉 기원 1세기 이전에 성읍국가로서의 본가야가 김해에 성립되었으며, 3세기 중엽에는 변한 12나라가 있었다. 또한 4세기 이후 가야지역은 연맹왕국 수준으로 왕권이 성장하였으며, 처음에는 본가야가 가야 전체의 맹주로서 임나라고 불리웠으나, 그 후 대가야가 가야 제국의 맹주로 등장하게 되어 임나는 대가야를 지칭하게 되었다는 것

31) 金哲垞, 〈韓國古代國家發達史〉(《韓國文化史大系》1, 民族·國家史, 高麗大, 1964), 484~487쪽.

32) 李基東, 〈加耶諸國의 興亡〉(《韓國史講座》1, 古代篇, 一潮閣, 1982), 154~164쪽.

이다. 이 견해는 千寬宇의 문헌적 연구 성과와 金廷鶴의 고고학적 연구 성과를 대폭 수용하였기 때문에 가야사에 대한 기본 골격이 상당히 정리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개설서의 성격상 지명 비정 및 고고학 편년상의 세부적인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한편 李永植은 대외전쟁의 규모와 양상으로 보아 4세기 말 이전의 가야 제국은 君長社會에 해당하며, 4세기 말 5세기 초 이후의 대가야·阿羅加耶와 같은 중심세력은 전쟁 규모가 1만 명 수준을 넘는 것으로 보아 도시국가에 해당한다고 하였다.<sup>33)</sup> 白承忠은 《삼국사기》 초기 기사와 《晉書》 등의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김해의 가야세력은 1~2세기 무렵에 급속히 성장하다가 3세기 초에 거의 몰락하였으며, 4세기에는 이미 진한 즉 신라에 복속되어 있었다는 주장을 폈다.<sup>34)</sup> 이들의 연구 결과는 기존설에서 사료적 가치에 대한 의문으로 인하여 이용하지 않던 文字資料들을 중시하여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사료해석 상의 무리한 점들이 노정되었으며 고고학 자료들이나 《삼국지》와 같은 다른 사료와 배치되는 점이 나타났다.

결국 순수하게 문헌적인 측면에서 가야의 발전과정을 다룬 연구들은 사료의 부족을 극복하지 못하여 가야의 발전추세 파악에 한계성을 드러내었으며, 이것은 가야사 연구에서 고고학자료의 활용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고 하겠다.

## (2) 고고학 계통의 가야문화 연구

신라·가야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조사는 1910년대부터 일본인 학자들에 의하여 시작되어 일련의 《朝鮮古蹟調查報告》가 출간되었으나, 발굴된 양이 많았던 데 비해 정식으로 조사 보고된 것은 절대적으로 빈약하여 오히려 신라·가야 유적의 상당수가 합법적으로 파괴된 측면이 있다고도 할 수 있

33) 李永植, 〈加耶諸國의 國家形成問題—「加耶聯盟說」의 再檢討와 戰爭記事分析을 중심으로—〉(《白山學報》 32, 1985).

34) 白承忠, 〈1~3세기 가야세력의 성격과 그 추이〉(《釜大史學》 13, 1989).

———, 〈3~4세기 한반도 남부지방의 세세력동향—초기가야세력권의 변화를 중심으로—〉(《釜山史學》 19, 1990).

다. 여하튼 이에 의해 신라·가야문화에 대한 대강의 윤곽은 드러났는데, 이를 개괄적으로 종합 정리한 것은 梅原末治였다.<sup>35)</sup>

梅原은 신라·임나의 두 문화권을 미리 나누어서 서술하기는 어려우므로 일단 경주 부근의 묘제를 설명하고 기타의 한반도 남부지역 고분은 따로 서술한다는 임시 기준을 세워 제8장에서 「古新羅」의 이름 아래 경주의 묘제만을 논하고 제9장에서 「南鮮各地」의 이름 아래 대구·성주·창녕·양산·김해·진주·함안·고령·선산·개령 등지의 묘제를 살폈다. 그 결과 가야지방의 고분 중에서 일찍이 신라의 세력 아래 들어간 창녕·대구 등에는 황혈식이 있으며 일부에 고신라의 적석총을 가미한 경향이 인정되나, 일본과의 국교가 밀접한 고령·함안의 묘제는 일본 上代の 古墓制에 보편적인 수혈식과 같은 계통에 속하고 있어서 일본사 연구자들에게 흥미를 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결국 그는 일본과 관련된 「임나」를 찾기 위해서 「경주를 제외한 남한 각지」를 잠정적으로 하나로 분류하여 따로 고찰하였으나, 구체적인 신라·임나문화권의 분류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金元龍은 한국고고학자로서 신라·가야문화권의 구분 문제를 처음으로 체계화하여, 4·5·6세기의 신라토기는 경주·양산·달성·창녕 등의 낙동강 東岸지대의 토기와 낙동강 西岸 성주의 토기가 포함되는 「신라 중심군」과 김해·함안·진주·고령 등 낙동강 서안 특히 그 남부지방의 토기로 구성되는 「가야 중심군」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sup>36)</sup> 또한 全吉姬는 묘제의 측면에서 이를 확인하여, 5세기 초부터 6세기 말까지의 시기에 달성·창녕 등의 낙동강 동안지방(성주 포함)은 羨道가 없는 황혈식 석실분(B1式)이 주류를 이루고, 김해·진주·고령 등 낙동강 서안지방은 수혈식 석실분(A式)이 축조되다가 그 말기에 이르러 연도가 달린 황혈식 석실분(B2式)으로 변화하여 문화권이 서로 구분된다고 하였다.<sup>37)</sup>

위의 두 연구 성과는 5~6세기의 신라·가야문화권 구분에 대한 하나의

35) 梅原末治, 《朝鮮古代の墓制》(座右寶刊行會, 1946).

36) 金元龍, 《新羅土器의 研究》(乙酉文化社, 1960), 6쪽.

37) 全吉姬, 〈伽耶墓制의 研究〉(《梨大史苑》3, 1961), 52쪽.

기준을 제시하여 주었으며, 특히 김원룡은 낙동강 서안의 토기양식을 「加耶群」이라고 명명함으로써 가야문화권으로서의 개념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전길희는 현상 파악을 제대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동안의 묘제까지 「가야 묘제」의 이름 아래 거론함으로써 후세의 연구자에게 혼동의 여지를 남겼는데, 이는 梅原末治의 초창기 연구 결과를 비판없이 수용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이후 국내의 발굴자료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고고학자들은 일련의 연구논문을 통하여 가야지역의 토기·고분묘제 및 편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체계를 마련하였다. 우선 李殷昌은 3세기 후반 이후의 낙동강 유역 출토 토기를 모두 가야토기로 보되, 낙동강 동·서안지역에서 양식상의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보았다.<sup>38)</sup>

가야관계 유물·유적의 편년에 대해서는 가야토기 및 고분의 형식 변천을 중심으로 하여 발생기(100~200), 전기(200~350), 중기(350~550), 후기(550~650)로 시기구분하였다. 또한 金廷鶴은 가야에 대한 고고학과 문헌사학의 통합을 시도하여,<sup>39)</sup> 고고학적 유적들을 邑落國家에 해당하는 先加耶時代(기원전)와 읍락국가연맹에 해당하는 가야시대 전기(1~3세기), 가야시대 후기(4~6세기)로 구분하고 나서, 가야 전기의 맹주국은 김해가야였으며, 그것이 가야 후기의 말기에 고령의 대가야로 바뀌었다고 하였다. 가야관계 유물·유적의 분포권 즉 가야연맹의 영역에 대해서는 그 東界를 조령에서 낙동강 입구 동래까지로, 그 西界를 소백산맥과 섬진강 線까지로 보았다.

이 연구 결과들은 방대한 고고학 자료에 대한 정리를 통하여 가야의 발전 추세를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데 공헌한 바 크다고 하겠으나, 그 분석에 있어서 유물·유적의 지역구분 및 편년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전의 연구 성과를 발전적으로 지양하지 못하고 경주를 제

38) 李殷昌, 〈新羅·加耶土器 編年에 關한 研究〉(《曉星女子大學校研究論文集》23, 1981).

——, 〈加耶古墳의 編年 研究〉(《韓國考古學報》12, 1982).

39) 金廷鶴, 〈古代國家의 發達(加耶)〉(《韓國考古學報》12, 1982).

——, 〈加耶史의 研究〉(《史學研究》37, 1983).

외한 영남지방 일대를 모두 「가야」라고 지칭하는 관례만을 계승하여 확대시켰다고 보이니, 이는 결국 가야문화와 신라문화의 구분을 모호케 함으로써 가야사에 대한 이해에 일정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에 비하여 최근 고고학계의 발굴이 점차 활성화되고 연구수준이 성숙되면서, 영남지역의 고대 문화에 대하여 기존의 것들보다 많은 정보를 제시하는 발굴보고서가 양산되고, 출토된 유물·유적을 세밀하게 종합 분류하여 나가는 연구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진변한 및 신라·가야의 묘제와 토기 형식 등에 대한 분류 및 편년 연구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보인다.<sup>40)</sup> 아직 엄밀한 형식 분류의 기준과 편년이 정착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어 가는 것은 가야사 연구를 위하여 바람직한 경향이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가야 자체의 발전과정에 주목한 연구의 현황과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그 전반적인 경향을 개괄하여 보고자 한다.

국내 학자들의 연구 경향은 우선 가야사를 발전적인 시각에서 다루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공로가 인정된다. 그러나 문헌사학 계통의 연구에서는 《일본서기》 소재의 사료나 고고학자료를 이용하지 못하고, 몇몇 단편적인 기사나 신화류만을 이용하여 가야사를 복원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편년이나 지역 발전추세 등의 면에서 체계적인 이해를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고고학 계통의 연구에서는 편년이나 발전추세의 대강을 바로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문헌 사료의 인도를 받지 못하여, 묘제 및 유물자료가 나타내 보여 주는 가야문화의 성격과 범위를 제대로 구분하여 내지 못한 한계성을 드러냈다. 가야사 연구의 이러한 문제점은 가야사 및 일본고대사뿐만 아니라 신라사·백제사의 연구에도 일정한 제약을 주고 있으며, 특히 신라의 성장 기반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40) 李賢惠, 《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一潮閣, 1984).

金鍾徹, 〈北部地域 加耶文化의 考古學的 考察〉(《韓國古代史研究》1, 1988).

崔秉鉉, 《新羅古墳研究》(一志社, 1992).

## 2. 가야사의 범위

### 1) 가야의 명칭과 6가야

가야사는 그 본기의 立傳이 史書에 따로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를 가리키는 명칭도 사료의 계통에 따라 일정치 않기 때문에, 그 연구의 대상을 어느 문헌에 근거하여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라는 기본적 문제가 대두된다. 그러므로 우선 「가야」·「가라」라는 명칭의 기원을 살펴 보고, 그를 가리키는 借字들의 종류와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야」·「가라」의 어원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람들이 쓰고 다니는 뽕죽한 모자의 지칭인 「가나」에서 나왔다는가, 南方 잡語의 개간한 평야를 가리키는 말인 「가라」(kala)와 같은 것이라든가, 또는 가옌나라(邊國), 가람(江), 거례(姓·一族), 구루(城邑) 등의 어휘가 변한 것이라든가 등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그 중에서도 통구스어와 만주어 등의 알타이 諸語에서 一族을 가리키는 가라(xala·kala)가 가야(kaya)를 거쳐 거례(ky re)로 음운 변화해 왔다는 연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편이나<sup>1)</sup> 더 이상 알 수 없다.

지명·국명으로서의 「가야」·「가라」를 가리키는 借字의 용례로는 「狗邪·拘邪·加耶·伽耶·伽倻·加羅·伽羅·迦羅·呵囉·柯羅·加良·伽落·駕洛」 등의 10여 종이 있어서, 이들의 출전 및 사용빈도를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면 「가야」에 대한 문헌사료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차자는 「加羅」(47회)이고, 그 다음으로 「加耶」(31회)·「伽倻」(28회)와 「駕洛」(15회)·「伽耶」(14회) 등이 있으며, 기타의 것은 1, 2회만 나오는 예외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가야」의 차자로서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狗邪」(《삼국지》)와 「加羅」(《광개토왕릉비》)이고, 그 다음으로 「加耶」·「伽耶」·「駕洛」(모두 《삼국사기》)이 나오며, 마지막으로 「伽倻」(《고려사》지리지)가 나타난다.

1) 崔鶴根, 《國語方言研究》(서울大 出版部, 1968), 6쪽.

——, 《韓國語 系統論에 關한 研究》(明文堂, 1988), 225쪽.

〈표 1〉 「가야」·「가라」 借字의 출전 및 사용빈도표

借字(頻度)	初見出典	最頻出典	出典(使用頻度)
狗邪(2)	三國志	三國志	三國志 魏書 東夷傳 弁辰韓(1)·倭人(1)
拘邪(1)	三國志	三國志	三國志 魏書 東夷傳 韓(1)
加耶(31)	三國史記	三國史記	三國史記 新羅本紀(19)·樂志(2)·地理志(3)·列傳(4), 高麗史 地理志(2), 東國輿地勝覽(1)
伽耶(14)	三國史記	三國遺事	三國史記 地理志(1), 三國遺事 王曆(1)·五伽耶(8)·駕洛國記(4),
伽倻(28)	高麗史	東覽	高麗史 地理志(3), 東國輿地勝覽(25)
加羅(47)	廣開土王陵碑	日本書紀	廣開土王陵碑(1), 宋書 倭國傳(3), 南史 倭國傳(3), 南齊書 加羅國傳(2)·倭國傳(1), 通典 新羅傳(1), 日本書紀(29), 新撰姓氏錄(1), 三國史記 新羅本紀(2)·樂志(2)·列傳(2)
伽羅(1)	梁書	梁書	梁書 倭傳(1)
迦羅(2)	隋書	隋書·北史	隋書 新羅傳(1), 北史 新羅傳(1)
呵囉(1)	三國遺事	三國遺事	三國遺事 魚山佛影(1)
柯羅(3)	日本書紀	日本書紀	日本書紀(3)
加良(2)	三國史記	三國史記	三國史記 新羅本紀(1)·強首傳(1)
伽落(1)	三國史記	三國史記	三國史記 地理志(1)
駕洛(15)	三國史記	三國遺事	三國史記 金庾信傳(1), 三國遺事 王曆(1)·五伽耶(1)·第四脫解王(1)·駕洛國記(5), 東國輿地勝覽(6)

한편 그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출전을 중심으로 「가야」가 가리키는 지명들을 살펴보면, 3세기 이전 시기를 주로 다룬 《삼국지》·《삼국유사》의 「狗邪」·「駕洛」은 모두 김해를 가리키고, 6세기 이후를 주로 다룬 《일본서기》의 「加羅」는 대부분 고령을 가리킨다. 또한 《삼국사기》 이후의 「加耶」·伽耶·伽倻」은 「某가야」의 형태로 표기된 것을 제외하고는 김해 또는 고령 중의 하나를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판단해 볼 때, 「가야」라는 이름은 김해세력의 지칭으로 처음 사용되었으며, 어느 때부터인가는 고령의 세력이 이를 그대로 이어받아 사용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가야사는 우선 이 두 지역을 포괄하

여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그렇게 볼 때 「가야」의 차자로는 둘 중 하나만을 주로 가리키는 狗邪·駕洛·加羅 등은 적절치 않고, 둘을 모두 가리키는 加耶·伽耶·伽倻 중에서 택하는 편이 낫다. 그 중에서 「加耶」가 가장 먼저 쓰이기 시작하였고 사용빈도도 높으며 한국고대사의 기본사료인 《삼국사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이니, 이를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가야」라고만 하였을 때는 김해나 고령의 소국을 가리킨다고 해도, 《삼국사기》金庾信傳이나 《일본서기》에는 「南加耶」 또는 「南加羅」가 나오고, 《삼국사기》·《고려사》지리지나 《동국여지승람》 등의 지리지 관계기록과 《삼국유사》五伽耶條 등에는 「大加耶」·「古寧加耶」·「阿那加耶」·「小加耶」 및 「金官伽耶」·「星山伽耶」(碧珍伽倻)·「非火伽耶」 등이 나타나고 있다(〈표 2〉 참조). 이 「某가야」 형태의 기록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표 2〉 문헌사료에 나오는 「某가야」의 분포표

사 료 某가야	三國史記 本紀·列傳	三國遺事 五 伽 耶	本朝史略 五 伽 耶	三國史記 地 理 志	高 麗 史 地 理 志	東國輿地 勝 覽	日 本 書 紀
남가야 금관가야 (金海市)	加耶 任那加良? 南加耶 *金官國	駕洛國 大駕洛 伽耶國	金官伽耶	* 金 官 國 伽落國 伽耶	駕洛 伽倻 *金官國	駕洛 伽倻 *金官國	南加羅
대가야 (高靈邑)	加耶 加羅	大伽耶		大加耶	大伽倻	大伽倻	加羅 *伴跛
아라가야 (伽倻邑)	*阿羅國	阿羅伽耶 阿耶伽耶	阿羅伽倻	*阿尸良國 阿那加耶	*阿尸良國 阿那加耶	*阿尸良國 阿那伽倻	*安羅
고령가야 (咸昌邑)		古寧伽耶	古寧伽倻	古寧加耶	古寧伽倻	古寧伽倻	
소가야 (固城邑)		小伽耶			小加耶	小伽倻	*久嗟 *古嵯
성산가야 (星州邑)		星山伽耶 碧珍伽倻	星 山 伽 倻 碧珍伽倻			星山伽倻 碧珍伽倻	*比自怛
비화가야 (昌寧邑)			非火伽耶				

\*표는 「某가야」가 아닌 다른 형태의 국명



〈표 2〉에서 보면 《삼국사기》 본기·열전 및 《일본서기》 등의 자료(《삼국지》 위서 동이전 포함)에는 남가야를 제외하고는 「모가야」라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기타의 「모가야」들은 《삼국유사》·《본조사략》의 5가야 조나 《삼국사기》·《고려사》·《동국여지승람》 등의 지리지 관계기사에서만 나타난다. 그러므로 일단 「본기 계통의 기사」와 「지리지 계통의 기사」를 분리하여 보되, 《삼국사기》 본기·열전의 지명 표기방식이 원전 편찬시기가 가장 앞선다고 보이는 《일본서기》의 그것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것을 주목하여야 한다.

본기 계통의 기사에 근거해 볼 때, 앞에서 본 駕洛·加耶·加羅國을 제외한 「모가야」 계통 소국들이 존재하던 당시의 이름은 김해의 南加耶 또는 金官國 또는 南加羅國, 고령의 半路國 또는 伴跛國 또는 叛波國, 함안의 阿羅國 또는 安羅國, 고성(高城)의 古資彌凍國 또는 古嵯國(久嗟國), 창녕의 比自怱國 등이 있을 뿐이다. 이들은 자기 이름을 가진 채로 전기 또는 후기 가야연맹 속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름 자체가 「모가야」는 아니었을 것이다.

반면에 《삼국유사》에는 고려 초에 정착된 전승자료인 《가락국기》와 연관이 있는 5伽耶의 이름들이 나오고, 《本朝史略》에는 고려 太祖 天福 5년 庚子(940)에 5가야의 이름을 고쳤다는 기사도 나오며, 그 후의 지리지 관계기사에서는 이 5가야를 일부 인정하기도 하고 또는 인정치 않기도 하여 이들 某가야의 구성은 일정하지 않다. 게다가 星山加耶의 지역으로 추정되는 성산동 고분군이 있는 성주군 성주읍 일대는 본래 지명이 本彼縣으로서 신라 一利郡(고령군 성산면)의 領縣이었는데, 신라 중대 말기의 경덕왕이 이를 新安縣으로 이름을 고치고 星山郡의 영현으로 삼았던 곳이다. 그렇다면 「성산가야」라는 국명은 후대의 명칭이로되 성산군 일대의 지역 중심이 京山府(성주읍)로 옮겨진 신라 말 고려 초 이후의 것이 아닐까 한다. 또한 古寧加耶의 지역인 상주시 함창읍은 위치상 가야 계통의 일국으로 보기에는 너무 떨어져 있다. 그러므로 남가야를 제외한 「모가야」라는 것들은 그들이 존재하던 당시의 이름이 아니고 후대 즉 나말여초 이후의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5가야에 남가야(금관국) 또는 대가야를 포함하여 일컫는 이른바 「6가야

연맹」이라는 명칭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데, 여기서 「6」이라는 숫자는 《삼국유사》五伽耶條와 《가락국기》의 6卵 설화에 의해 생긴 개념이다. 그러나 후술하듯이 《삼국지》에는 3세기 당시의 弁辰狗邪國을 포함한 변한 12국의 명칭이 나타나고, 《일본서기》에는 6세기 당시의 加羅國을 포함한 10여 개의 국의 명칭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6」의 숫자 및 「6가야」의 명칭은 가야 계통의 여러 소국들이 정치적 연맹체를 이루고 있을 당시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구체에 논하자면 신라 6部 姓氏에의 대응 및 나말여초 本貫制의 성립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사료가 부족한 가야사에서 후대의 기록일망정 그대로 지나칠 수는 없다 하겠으며, 후대의 인식에서 어떤 지역세력이 신라나 백제가 아닌 가야의 한 세력이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가야」라는 세력이 언젠가 커다란 세력권을 영유한 적이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사료상으로 「가야」라는 이름이 김해나 고령뿐만 아니라 그를 포함한 주변의 廣域을 가리킨 직접적 사례가 분명치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안이 없는 한 가야사에서 가야를 비롯한 모가야들의 지역까지 포괄하여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 2) 변한 및 임나와의 관계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가야사의 범위를 약간 확대해 볼 때, 이것과 《삼국지》의 변한 및 《일본서기》의 임나와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생긴다. 변한과 임나는 그 용어가 가리키는 지역 범위와 시기가 가야와 일정하게 중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변한」 또는 「弁辰」은 《三國志》魏書 東夷傳 韓條에서 韓族을 정치 상황에 따라 馬韓·辰韓·弁韓의 셋으로 구분한 것 중의 하나이고, 弁辰狗邪國을 비롯한 彌離彌凍國·接塗國·古資彌凍國·古淳是國·半路國·樂奴國·彌烏邪馬國·走漕馬國·安邪國·瀆盧國 등 12소국을 통칭하여 쓰이는 이름이다. 그러므로 김해의 구야국 즉 가야국이 2~3세기 당시에 변한이라는 정

치체에 속하여 있고 그 정치체는 가야를 비롯한 주변의 여러 소국의 연맹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魏志》韓傳에서는 마한과 달리 변한에 대해서는 그를 대표하는 맹주국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여 놓지 않아서 변한과 가야의 관계를 더이상 추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삼국사기》新羅本紀의 초기 기록에는 설화자료를 편년체로 편찬하는 과정의 한계성 때문에 사료상의 문제점은 있다 하여도, 赫居世王 19년(기원전 19) 정월조에 「卞韓」이 와서 항복하였다는 상징적인 기사와 婆娑王 23년(102) 8월조에 「金官國」首露王이 분쟁을 중재하였다는 설화 기사를 제외하고는 이 낙동강 유역의 세력을 모두 「加耶」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는 신라 초기에 신라의 서쪽에 인접하여 있던 세력의 대표를 加耶라고 여기던 후세 인식의 반영이며, 앞에서 언급한 파사왕 23년조에서는 금관국 즉 가야의 수로왕이 신라왕의 초대를 받아 사로국 주변의 音汁伐國과 悉直谷國의 분쟁을 중재하였다고 하므로, 가야의 맹주적 위치에서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三國志》魏書 韓傳의 기록으로 보아, 마한의 진왕이 마한과 변한 12국을 대표하는 공식 칭호에는 마한系 2국의 臣智와 함께 변한系인 安邪國과 狗邪國의 신지들이 聯名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니, 변한에서 구야국의 중요성을 가늠하여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삼국지》와 《삼국사기》의 기사들을 종합해 볼 때, 1~3세기의 낙동강유역에는 10여 국으로 구성된 변한소국연맹이 있었으며 그 실질적인 대표 즉 맹주국은 김해의 가야(구야국)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야 중심의 변한소국연맹은 혹은 三韓史의 일부로서 또는 더 세분하여 각 소국마다 따로 다를 수 있지만, 신라에게 멸망되는 6세기 이전까지 이 지역 전체의 독립적 역사를 종합한다는 관점에서는 모두 아울러서 가야사에 포함시켜 논의해야 할 것이다.

가야지역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용례로서 「任那」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임나와 가야와의 관계를 생각하여 보기 전에 우선 「임나」를 가리키는 借字인 「任那·彌摩那」 등의 出典 및 사용빈도를 정리하여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임나」 借字의 출전 및 사용빈도표

借字(頻度)	初見出典	最頻出典	出典(使用頻度)
任那(237)	廣開土王陵碑	日本書紀	廣開土王陵碑(1), 眞鏡大師塔碑(1), 三國史記 強首傳(1), 宋書 倭國傳(4), 南齊書 倭國傳(1), 梁書 倭傳(1), 南史 倭國傳(5), 通典 新羅傳(1), 新撰姓氏錄(7), 日本書紀(215)－崇神紀(2), 垂仁紀(2), 應神紀(2), 雄略紀(6), 顯宗紀(4), 繼體紀(12), 宣化紀(3), 欽明紀(133), 敏達紀(9), 崇峻紀(4), 推古紀(29), 舒明紀(1), 皇極紀(1), 孝德紀(7)－
彌摩那(1)	日本書紀	日本書紀	日本書紀 垂仁紀(1)
彌麻奈(2)	新撰姓氏錄	新撰姓氏錄	新撰姓氏錄(2)
御間名(1)	"	"	新撰姓氏錄(1)
三間名(2)	"	"	新撰姓氏錄(2)

〈표 3〉에서 보면, 「임나」 또는 「미마나」의 차자 243회 중에서 국내사료인 〈광개토왕릉비〉·〈眞鏡大師塔碑〉와 《삼국사기》 強首傳의 3례와 중국사료인 《宋書》 倭國傳의 4례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측 사료의 용례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임나」의 차자로서 처음 나오는 〈광개토왕릉비〉의 「任那加羅」<sup>2)</sup>와 〈강수진〉의 「任那加良」<sup>3)</sup>은 어디를 가리키는지 그것만으로는 짐작할 수 없고, 〈진경대사탑비〉의 「任那」<sup>4)</sup>는 그것이 「新金氏」 또는 「興武大王」과 관련되어 쓰였으므로 일단 그 위치를 김해로 추정해볼 수 있으나 아직 분명치 않다. 그러한 사정은 任那와 加羅를 두 개의 「國」으로 간주한 《송서》 왜국전에서조차 다를 바 없으며, 《송서》의 용례는 5세기의 倭側의 것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단 「임나」의 뜻을 《일본서기》를 비롯한 일본사료에서 어떻게 간주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廣開土王陵碑(王健群의 釋文) 永樂 10년(400) 庚子條.

3) 《三國史記》 권 46, 列傳 6, 強首.

4) 昌原 鳳林寺眞鏡大師寶月凌空塔碑(許興植, 《韓國金石全文》 古代篇, 亞細亞文化社, 1984), 257쪽.

우선 《일본서기》崇神紀에 ‘任那者 去筑紫國 二千餘里 北阻海 以在雞林之西南’이라는 기록이 나오고, 《신찬성씨록》未定雜姓 右京條에 ‘三間名公 彌麻奈國主 牟留知王之後者’의 기록이 나온다. 송신기에서 임나의 위치는 김해를 가리키는 듯하고, 《신찬성씨록》에서 미마나국주 「牟留知王」이 「朱留知王」의 오기라면 이는 首露王을 가리킨다고 보아<sup>5)</sup> 여기서의 「미마나」도 김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서기》에서 사료의 신빙성이 인정되기 시작하는 繼體紀로부터 시작하여 「任那」라는 용어가 133회나 나오는 欽明紀를 포함하여 孝德紀까지에서의 「임나」는 좀더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여기서의 임나는 왜가 이를 총괄하여 지배 또는 경영한다는 전제 아래에서의 인식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한반도 남부의 신라나 백제에 복속되지 않은 소국들의 총칭 또는 그 지역 전체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 단적인 사례가 흠명기의 ‘任那滅焉 總言任那別言加羅國・安羅國・斯二岐國・多羅國・卒麻國・古嵯國・子他國・散半下國・乞浪國・稔禮國 合十國’이라는 기사이다. 그리고 이 임나는 멸망 당시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이전 계체기나 흠명기 초년의 기사로 보아서는, 여기에다 上哆喇・下哆喇・娑陀・牟婁의 4縣과 己汶・帶沙의 2地 및 喙己吞・南加羅・卓淳의 3국 등을 더해야 할 시기도 있었다고 추정된다. 이렇게 볼 때 《일본서기》에서의 「임나」는 대체로 5~6세기 당시의 한반도 남부에서 신라나 백제에 복속되어 있지 않은 諸小國의 총칭을 가리킨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며, 이는 당시의 이들 제소국이 신라나 백제와 구분되는 하나의 세력권을 이루고 있었던 사실의 반영이라고 하겠다.

한편 《삼국사기》에서 법흥왕 9년(522)에 신라와 國婚을 하였다는 「加耶」는 《동국여지승람》의 기록과 대비하여 보면 고령의 대가야를 가리킴에 틀림없으므로, 이는 6세기 초 당시에 고령세력이 가야지역의 대표자로서 인정받고 있었던 사실을 반영한다. 또한 《삼국사기》樂志의 于勒十二曲의 곡명에 上・下加羅都, 達已, 思勿, 勿慧, 上・下奇物, 居烈, 沙八兮 등 여러 지역의郡樂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가야의 악사인 우륵이 모두 정리하고 있었으

5)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博英社, 1976), 341쪽.

므로 당시 가야 즉 고령 대가야의 맹주적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백제와 왜 사이의 國書에서 「百濟」나 「百濟王」 뒤에 「加羅・安羅」 또는 「安羅王・加羅王」이 聯名되어야 하였던 것으로 보아,<sup>6)</sup> 당시의 충청 임나에서 대가야의 중요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서기》와 《삼국사기》의 기사들을 종합해 볼 때, 5~6세기의 한반도 남부에는 신라나 백제와 구분되면서 10여 국으로 구성된 諸小國聯盟이 있었으며 그 실질적인 대표 즉 맹주국은 고령의 加耶(加羅國)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서기》에서 5~6세기 당시의 이 諸小國연맹 지역을 충청하여 부르는 「任那」라는 명칭을 써서 왜의 간섭이라는 관념이 담긴 任那史로 다룰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전체의 前代부터의 역사와 구분하면서 종합한다는 관점에서 이 모두를 加耶史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 3) 가야사의 시기 구분

《삼국유사》왕력에 의하면 김해 駕洛國은 後漢 光武帝 建武 18년 壬寅(42)에 시조 首露王이 개국하고, 梁 武帝 中大通 4년 壬子(532) 즉 제10대 仇衡王 12년에 멸망하였으니, 그 전체 歷年은 490년이다. 한편 《삼국사기》지리지 및 신라본기에 의하면 고령 大加耶國은 시조 伊珍阿豎王이 서기 42년에 개국하고, 제16대 道設智王에 이르러 신라 진흥왕 23년(562)에 멸망하였으니, 그 전체 역년은 520년이다. 그러므로 그 둘을 포괄한 가야사의 전체 시기는 42년부터 562년까지의 520년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가야의 경우에는 왕의 계보가 전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가락국의 경우는 《삼국유사》에 왕의 계보가 모두 전하나 각 왕의 재위 연수가 王曆의 것과 《駕洛國記》의 것이 서로 달라서 일정치 않다.

한편 《삼국사기》신라본기에는 가야국 관계기사가 전쟁 및 교빙관계 위주의 것이 나오는데,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탈해왕 21년(77)부터 奈解王 17년(213)까지 가야국 관계기사 12개조가 나오다가 끊어지고, 다시 소지왕 3년

6) 《日本書紀》권 19, 欽明天皇 13년 5월조 참조.

(481)부터 진흥왕 23년(562)까지 가야국 기사 8개조가 나온다. 또한 탈해왕 즉 위년조와 파사왕대 및 범흥왕대에 걸쳐 金官國 관계기사 3개조가 나온다. 여기서 금관국은 김해의 가락국을 가리키는 것이나, 가야국은 서로 달라서, 나해왕대 이전의 加耶·加羅는 모두 김해 가락국을 가리키고, 소지왕대 이후의 加耶·加良은 모두 고령 대가야국을 가리키는 듯하다.

위와 같이 한국고대사의 기본 문헌인 《삼국사기》·《삼국유사》를 통하여 볼 때 가야사의 시작은 서기 42년으로, 그 종말은 562년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사료의 미비 상태로 인하여 이를 다시 세분하여 시기 구분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에다 가야지역에서 출토된 고고학 자료와 《삼국지》·《일본서기》·〈광개토왕릉비〉 등의 가야 관계 기사들을 추가하면 대체 적이나마 시기를 좀더 세분할 수 있다.

문헌상으로 보아 「가야」라는 이름을 쓰는 국가는 둘이 있다. 400년경까지는 김해의 가락국이 가야라고 칭하였고, 5세기 후반 이후로는 고령의 대가야국이 가야라고 칭하였다. 고고학적으로 보아 4세기 이전의 문화 중심은 김해지역이고, 5세기 이후의 문화 중심은 고령지역이었다. 그러므로 일단 4세기 이전을 전기 가야시대, 5세기 이후를 후기 가야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김해 駕洛國(狗邪國·本加耶) 중심의 전기 가야시대에 고령지역 소국의 국명은 伴跋國(半路國)이었던 듯하며, 고령 대가야국 중심의 후기 가야시대에 김해지역 소국의 국명은 南加羅國(南加耶國) 또는 금관국이였다.

전기 가야사는 1~4세기 동안 김해 가락국을 중심으로 한 경남해안 및 낙동강 유역의 변진 12국의 역사를 말한다. 이 시대를 세분하면, 철기를 수반하는 토광목관묘 문화가 시작되는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1세기경까지를 가야문화 기반 형성 시기로 볼 수 있고, 토광목곽묘 문화가 형성되는 기원후 2세기대를 加耶 諸國 성립 시기, 3~4세기는 김해지역의 우월성이 드러나는 전기 가야연맹 시기이면서 가야문화의 전성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성기의 말미인 400년경에 국제관계에 휘말려 중심 소국들이 고구려·신라 연합군의 공격으로 일단 멸망함으로써 전기 가야연맹은 해체되었다.

후기 가야사는 5~6세기 동안 고령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경상 내륙 및 낙동강 西岸 10여 소국들의 역사를 말한다. 그 시대를 세분하면, 수혈식 석

곽요 문화가 각지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5세기 전반기를 가야제국 복구 시기로 볼 수 있고, 5세기 후반부터 520년대까지는 고령 대가야의 우월성이 두드러지는 후기 가야연맹 시기이면서 가야문화의 중흥기로 볼 수 있다. 520년대 후반 이후는 가야연맹이 소멸과정을 겪는 시기이니, 그 중에서도 530년대는 신라·백제의 침투로 인하여 남부지역의 일부 소국들이 멸망하는 시기, 540년대는 대가야(고령)·안라(함안)의 南北二元體制로 분열된 시기, 550년대는 백제의 부용체제로 들어간 시기였다. 그러나 백제의 관산성 패전 이후 562년에 대가야국이 신라의 공격으로 함락되면서 후기 가야연맹은 종식되었다.

이것은 결국 문헌자료와 고고학적 자료를 종합하여, 가야의 정치적 전개과정을 기준으로 삼고 사회·문화의 발전단계를 고려하여 구분한 것으로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 전기 가야시대 ① 가야문화 기반 형성기 : 기원전 1세기~기원후 1세기경.
- ② 가야 제국 성립 시기 : 2세기.
- ③ 가야연맹 전성기 : 3~4세기.
- 후기 가야시대 ④ 가야 제국 복구 시기 : 5세기 전반.
- ⑤ 가야연맹 중흥기 : 5세기 후반~520년대.
- ⑥ 가야연맹 소멸 시기 : 530년대~562년.

〈金泰植〉